



책으로서의 예술, 예술로서의 책

- 한국의 미술책, 미술 출판

근대적인 인쇄술의 대중화, 근대화와 함께 미술출판도 매우 활발하였다. 1907년 공예학교인 관립 『공업전습소』와 『도사학교』 그리고 『교육서화관』이 설립되어 학생을 모집하기 시작하였고 애국계몽단체에 들어감으로써 사회활동을 시작했던 화가 이도영은 1908년 3월에 학부 명의로 발간된 미술교과서 『도화임본』 4책의 원화를 그렸으며 『연필화임본』도 만들었다.

또 오영근은 『중등용기화법』이란 제



초토의 시, 구상 저. 이충섭 정정

목의 제도교본을 내놓았다. 근대적인 의미의 최초의 미술교과서였던 셈이며 미술도서 즉 전문서였던 셈이다.

이후 고유섭은 국내의 중요한 고대 미술품의 조사와 연구에 힘썼다. 1933년 3월 개성부립박물관 관장으로 부임하여 십여 년간 박물관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우리 미술사 연구에 주력했다.

그 당시 연구의 초점은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석탑에 대한 연구였다. 그의

연구성과를 사후에 간행한 것이 『한국 탐파의 연구』(1948년 간, 을유문화사)이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고대 조형을 질과 양으로 대표하는 탐파에 관한 최초의 학술적 서적이다.

그의 유고를 모아 엮은 책으로 『한국 미술사급미학논고』(1963년, 통문관), 『조선화론집성』(1954년, 고고미술동인회), 『한국미술문화사논총』(1949년 간, 통문관), 『송도의 고적』(1940년 간) 등으로 간행된 바 있다.

이후 일제 강점기로 인해 민족적 자각과 우리 것의 소중함에 눈을 뜬 미술사 연구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출판은 성과에 비해 부진하였다.

이후 미술사가로 저술가로 김용준을 들 수 있다. 그는 1926년에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미술학교를 졸업했다. 재학 시절 프롤레타리아 미술론을 공부하면서 일약 논객으로 등장한 그는 후에 조선향토색론에 대해서 확고한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그의 미술관련 저술로는 『근원수필』(1948), 『조선미술대요』(을유문화사, 1948)이 있으며 이 책들은 범우사에서 다시 출간하였다.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과학원출판사, 1958)가 있으며 1959년에 『조선화 기법』을 비롯 생전에 『조선미술사』와 『단원 김홍도』를 출간했다.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열화당에서 『김용준 전집』(전5권)을 출간했다.

우리 미술사 연구와 박물관 문화의 산파였던 김재원은 1968년 한국고고학회 초대회장을 역임했으며, 고고학분야와 박물관학 분야에서 탁월한 저술을 많이 남겼다. 저서로 『박물관』(고려문화사, 1946), 『단군신화의 신연구』(정음사, 1947), 『호간총과 은영총』(국립박물관, 1947), 『미술고고학용어집』(을유문화사, 1955), 『조선미술』(미술출판사, 1967)이 있다. 또한 그의 『박물관과 한평생』(탐구당, 1992)은 한국 박물관 역사를 증거하는 중요한 저서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1969년에 「우리나라의 옛

그림」을 『아세아』에 연재하면서 미술사가로 자리잡은 이동주는 한국회화 특히 조선조 회화에 탁월한 연구성과를 통해 한국미술사의 지평을 넓혔다. 일본에 있는 많은 우리 옛 그림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 1973년 「민족 회화의 발굴」을 『한국일보』에 연재했다. 또한 1980년에 『계간미술』에 「한국미술사의 재조명」을 연재했다.

그의 연구성과는 『한국회화소사』(서문당, 1972), 『일본 속의 한화』(서문당, 1974), 『우리나라의 옛그림』(박영

한국전통 회화에 남다른 연구성과를 이루어 낸 충남 공주 출신인 유복열은 오세창 문하에 출입했고 이한복, 김은호, 이상범, 변관식과도 어울리는 한편, 작품 수집에 힘을 기울여 2천여 점을 소장하였으나 해방과 한국 전쟁 과정에 모두 산실되어 『한국회화대관』의 집필 계획을 세우고 진력한 끝에 1979년 출간할 수 있었다.

이때 이병도, 김원용 등도 함께 도왔다고 전해진다. 그의 『한국회화대관』(문교원, 1979)은 오세창의 『근역서화

일제 강점기로 인해 민족적 자각과 우리 것의 소중함에 눈을 뜬 이후 근대적인 인쇄술의 대중화, 근대화와 함께 미술출판도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1907년 공예학교인 관립 『공업전습소』와 『도사학교』 그리고 『교육서화관』이 설립되어 학생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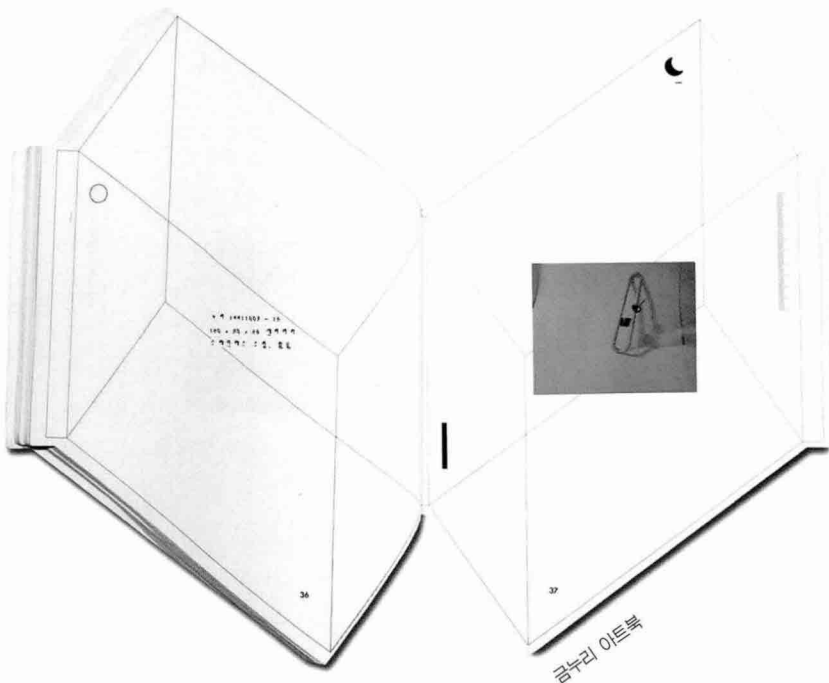
사, 1975), 『한국회화사론』(열화당, 1987), 『우리 옛그림의 아름다움』(시공사, 1997)으로 출간되었다.

고고학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올린 김원룡은 일찍이 1950년 6월 『신천지』에 「박물관 운영과 그 대중화」를 발표해 다양한 관심 영역을 갖고서 집필활동을 펼쳤다. 미술사와 박물관학에도 남다른 관심을 기울였던 그는 폭넓은 지식과 관심을 바탕으로 독보적인 한국 미술 통사를 저술할 수 있었다.

저서로는 『신라토기의 연구』(을유문화사, 1960), 『한국고고학 개설』(일지사, 1965), 『한국미술사』(범문사, 1968), 『한국미술소사』(삼성문화재단, 1973), 『우리미술의 특색』(신구문화사, 1973), 『한국문화의 기원』(탐구당, 1976), 『한국미의 탐구』(열화당, 1978), 『한국벽화고분』(일지사, 1980), 『신라토기』(열화당, 1981), 『한국고고학연구』(일지사, 1987), 『한국미술사연구』(일지사, 1987)가 있으며 타계한 뒤 안취준과 함께 쓴 『한국미술사』(서울대출판부, 1993)가 있다.

징」이 나온 이래 조선회화를 집대성한 대형 미술사전이다. 모두 747명의 서화와 그들의 대표작품 천여 점을 소개하고, 흑백사진 도판으로 760점의 작품을 수록하고 있다.

근대적인 회화가 이 땅에 자리하면서 미술관련 도서도 시야를 넓혀나간다. 이러한 연구의 대표적인 연구자로는 윤희순을 들 수 있다. 화가이자 미술비평가로 미술사가로 활동한 그는 1930년 10월 「협전을 보고」를 발표하면서 미술비평가로 활동을 시작했다. 1932년 6월에 발표한 「조선미술의 당면과제」는 당대 조선미술계의 문제를 과감하게 드러내고 진취적인 해결방도를 제시함으로써 일약 미술계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사후 1년 뒤 발표된 『조선미술사의 방법』(1948)은 미술사가로서의 위치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역작으로 평가된다. 그의 저서로는 『조선미술사연구』(서울신문사, 1946)가 있으나 절판되었다가 동문선에서 1994년 9편의 글을 추가하여 다시 출간되었다. 특히 2000년에 재출간된 열화당판 『조선미술사연



구』는 완벽한 복간판이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이경성으로 이어진다. 이경성은 선구적인 근대미술사 연구자로서 숭한 연구 성과를 낳았다. 근대미술의 현장에서 비평가로 활동한 그의 저술은 미술현장의 생생한 기록이자 예리한 시각적 비평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의 이러한 성과는 『미술입문』(문화교육출판사, 1961), 『한국미술사』(문화교육출판사, 1962), 『공예통론』(수학사, 1967), 『한국근대미술연구』(동화출판공사, 1974), 『근대한국미술가론고』(일지사, 1974), 『한국현대미술사-공예』(국립현대미술관, 1975), 『미술이란 무엇인가』(일지사, 1976), 『현대한국미술의 상황』(일지사, 1976), 『한국 근대회화』(일지사, 1980), 『수화 김환기: 내가 그린 점 하늘에 갔을까』(열음사, 1980), 『속 근대 한국미술가론고』(일지사, 1989)가 있고, 『어느 미술관장의 회상』(시공사, 1998) 등이 있다.

그리고 미술사적 관점의 저술출판 활동도 증가하지만 1974년 동화출판사가 간행한 한국미술전집 중 15권 『근대미술』은 원색화보로 우리 근대미술사의 대표적인 작품을 모았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물론 이러한 원색화집은 이미 오지호와 김주경에 의해 일제 강점기인 1938년 출간되었다.

한국최초의 원색화집으로 『오지호, 김주경 2인 화집』(한성도서주식회사,

1938)이 바로 그것이다. 오지호의 '순수 예술론'과 김주경의 '미와 예술' 등 두 편이 논문이 실려 있어 단순한 화집이 아닌 화론서로서의 의미도 함께 갖는다.

일제 강점기에는 일부 진보적인 잡지인 『개벽』 『동광』 등에서 미술관련 기사나 기고문을 게재하기도 하였으나 1921년 『서화협회보』가 창간되어 새로운 미술언어인 서양화를 소개하고 기법을 탐구하는 내용을 다룬다. 이후 일간지와 『조광』 『춘추』 『삼천리』 등을 통해 미술 분야의 기사가 계속된다. 해방과 함께 조선 조형예술동맹은 『조형예술』을 발간하나 통권 1호로 끝을 맺고 말았다. 해방 후 미술을 통한 새로운 조국건설을 꾀했던 잡지로 윤희순, 정현웅 등이 필자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 화가 이항성은 1.4후퇴의 피난시절, 당시 최현배 문교부 국장을 설득하여 최초의 국정교과서 편저를 인가받아 1947년 초 중·고미술교과서 편저, 문교부 미술교과서 편집위원(1952년), 중등 미술교과서 편저(1966, 김인정 교과서)를 거치면서 미술교과서를 발간하고 한국미술교육협회를 결성 등 전후 어려웠던 시절에 한국미술교육을 이 땅에 뿌리내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그는 1950년대 출판사를 설립하여 최초의 미술월간지 『신미술』을 발행(1956년)하여 13호까지 발간하면

서 새로운 해외미술 소개에도 앞장섰다. 또 해외미술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던 시절 『서양미술사』 『세계미술전집』(4권) 『뎃생 입문』 등을 발간하여 해방이후 미술의 저변확대와 대중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내었다.

이후 1964년 6월호 시작으로 월간 『미술』을 창간하였으나 결국 통권 1호로 막을 내리고 말았다. 1958년 산업적 측면에서 공예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창간된 『공예』지가 있다.

이 잡지도 월간발행을 목표로 창간하였으나 창간호를 마지막호로 폐간하고 말았다. 또한 아동미술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였던 전상범 등이 필자로 참여한 『아동미술』이 1965년 창간되기도 하였다. 이듬해 에이제자주식회사는 월간으로 『공간』이란 제호로 건축전문지를 발행하였으나 이 또한 통권 1호를 끝으로 폐간하고 말았다. 그리고 1969년 사단법인 한국디자인센터에 의해 발간된 『계간 디자인』은 기관지 성격을 떠나 현재까지 발간되고 있는 60년대 창간된 유일한 미술잡지이다.

이후 김수근의 공간그룹에 의해 종합예술지를 표방한 『공간』지가 1975년 9월 창간하여 미술은 물론 건축과 전통회화, 음악, 무용 등 제 분야를 충실하게 다루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문예지를 제외한 가장 수명이 긴 문화 예술잡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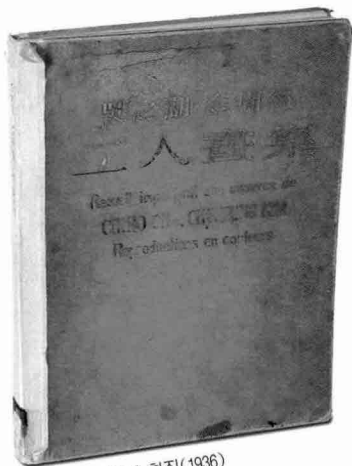
1973년 근대적인 의미의 상업화랑 시대를 열어간 현대화랑은 『화랑』이라는 잡지를 창간하여 격월간으로 발행하기 시작하였고 1970년 명동성당을 올라가는 길에 처음 문을 연 '명동화랑'은 우리나라 추상화분야에 있어서 지대한 공헌을 한 곳이다. 이곳에서 추상화가 박서보 하중현 윤희근 등이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2~3년 후 도저히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었던 명동화랑은 이곳저곳으로 이전하면서 명맥을 이어가다 결국 문을 닫고 말았다.

미술』로부터 시작되었다. 1976년 겨울 현 『월간 미술』의 전신인 중앙일보사가 간행한 『계간 미술』도 미술인구의 저변을 넓히는 한편 미술의 심도를 깊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 이용길이 세운 출판사가 1977년 임영방 등을 영입하여 그해 4월 창간호를 발간한 월간 미술교양지 『미술과 생활』도 순수미술지상주의적인 입장에서 탈피, 삶과 연계시키는 한편 미술의 사회적 기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미술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한국현대미술전집』(정한출판사, 1977)이 출간되었다. 총 20권으로 하드커버로 출간된 이 시리즈는 이경성, 이구열, 오광수, 박용숙, 김윤수 등이 필자로 참가해서 한국 근·현대 미술사를 망라하는 전집으로 한국현대미술사가 인상 비평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는 핸디캡을 극복 하는 동시에 작가들을 사조중심, 경향중심으로 분류하여 출판한 의미 있는 시리즈이다.

이러한 도판 중심의 화집은 1990년 금성출판사에서 출간된 총 27권의 『한

일제 강점기에는 일부 진보적인 잡지인 『개벽』 『동광』 등에서 미술관련 기사나 기고문을 게재하기도 하였으나 1921년 『서화협회보』가 창간되어 새로운 미술언어인 서양화를 소개하고 기법을 탐구하는 내용을 다룬다. 이후 일간지와 『조광』 『춘추』 『삼천리』 등을 통해 미술 분야의 기사가 계속된다. 해방과 함께 조선 조형예술동맹은 『조형예술』을 발간하나 통권 1호로 끝을 맺고 말았다



오지호 김주경 화집(1936)

그러나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는 1974년 4월 창간호가 폐간호가 된 『현대미술』을 발행하는 의지를 보이기도 하였다. 또 화가 서세옥은 1975년 『한국미술』을 발행하면서 해방 30주년을 맞는 한국미술의 평가와 진로를 나름대로 모색하기도 하였으나 이도 통권 1호로 종간하고 말았다.

본격적인 미술전문지 시대는 『계간

1979년 화랑협회가 간행한 격월간 『화랑춘추』도 본격 상업화랑들의 연합체인 화랑협회가 발간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상업화랑인 선화랑은 1979년 계간으로 『선미술』을 발행하면서 미술잡지의 황황시대는 미술의 황황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1988년 디자인하우스에 의해 발행된 『월간 공예』와 『월간 디자인』도 새로운 시대 감각을 수용하는 디자인과 공예미술문화의 발전을 위해 창간하였으나 얼마 후 폐간하고 말았다.

잡지들이 명멸하는 동안 전문적인 미술출판은 황황을 띄기 시작한다. 1976년 출간된 금성 출판사의 『한국현대미술 - 대표작가 100인 선집』의 출간은 매우 의미가 크다. 한국 근·현대 미술을 선도했던 100인의 작가를 선정해서 도판중심으로 출간한 이 도서는 일부 오류에도 불구하고 전공자들에게는 중요한 연구 자료가 되고 있다.

작가들의 성원으로 100인 선집은 일정한 성공을 이루게 되었고 이후 한국 근·현대미술을 아우르는 미술전집인

국근대회화선집』(금성출판사, 1990)의 출간으로 완성되었다.

중요작가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미술 비평가 또는 미술사가들이 직접 작가론을 집필하여 수록함으로써 작가연구에 중요한 저작물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월북 작가들을 별책으로 다루고 있어서 별다른 의미를 가진다. 이구열의 책임아래 김희대 등이 참가한 이 전집은 작품연구에 있어서 연구자들에게 근현대미술 연구의 기준작 역할을 하기도 한다.

본격적인 미술이론서는 1971년 이기웅에 의해 설립된 열화당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이후 1975년부터 본격적인 미술출판을 시작한다. 미술전문 출판사로서 열화당을 독자들에게 인식시킨 '미술문고' 시리즈가 『미켈란젤로』 『반고호』 『폴 고갱』 『피카소』 『현대미술의 감상』 등 5권을 시작으로 출발하여 총 67권까지 출간된 이 시리즈는, 1994년부터 출간된 새로운 체제의 '열화당 미술문고'에 자리를 넘겨주었다.

열화당은 괄목할 만한 미술서적을 많

이 출간하였는데 초기 출판된 미술서로는 본격적인 미술이론 시리즈인 '열화당 미술선서'가 곰브리치의 『서양미술사』를 시작으로 출발하였다.

특히 《미술의 역사》는 1950년에 초판이 발간된 이래 50년간 영어 16판 이상 발행되어 600만 부가 넘게 팔렸고 전 세계적으로 30여 종의 언어로 번역, 출간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책은 열화당에 의해 1977년 처음 번역된 이후 미술 전공자들과 일반교양인 모두에게 꾸준히 읽히는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았다. 이후 『이조의 민화』 『한국의 불화』를 1978년에는 '한국문화예술총서' 출간을 시작, 현재 『한국미의 탐구』 『중국회화사』 『한국 민속학사』 『예술과 영혼』 『한국현대미술사』 등이 출간되었다.

이러한 미술전문서 출판은 미술인구의 확산과 전공자의 확대 등으로 이어졌다.

또 1973년 설립하면서 미술도서 전문 출판사를 표방하고 출발한 미진사는 특히 디자인과 공예분야 출판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1990년 출발하여 한국 현대 미술가들의 작가론과 한국현대미술을 이론적으로 접근한 서적을 출간해 온 재원 등이 있다. 1990년 출발하여 우리 문화, 미술의 아름다움을 밝혀나가는 학교재신서와 문인들의 외국 문화예술 기행기인 세계문화예술기행 시리즈, 그 밖에 전 국립중앙박물관장 혜곡 최순우 전집 등을 펴내는 인문정신이 배어있는 우리 문화, 우리 고전서를 출판해온 학교재, 1976년 창립하여 『태백산맥』 『함석헌 전집』 등 무게 있는 인문서적을 출판해 온 한길사가 1999년 자회사로 한길아트를 설립하여 미술출판에 열심이다.



김나래 아트북



인상수 보고서

특히 한국의 출판사로는 획기적으로 해외 출판사와 공동기획으로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전 세계를 넘나들며 쓴 우리 시대의 고전 <ART & IDEAS>는 최근의 연구 성과까지 쉽고 흥미진진하게 풀어쓴 미술교양서이다.

이 외에도 한국의 고전은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미술교양서, 전문서를 출판함으로써 풍성한 미술동네를 이끌고 있다.

1990년 출판계에 등장한 시공사는 1994년 55인의 한국현대미술가의 그림을 모은 화집 <아르비방> 시리즈를 출간하면서 한국현대작가들의 작품을 세계에 소개하는데 손색이 없는 출판으로 기대를 모으며 출발하였다.

1997년 국내는 물론 일본 및 동남아

등지에 산재한 불화를 모은 화집 『고려 시대의 불화』를 펴내어 출판계 및 문화계에 신선한 돌풍을 불러일으켰다. 시공사는 순수미술에서 디자인, 건축, 공예, 영화, 멀티미디어, 애니메이션까지 미술과 관련된 여러 책을 기획, 출간하고 있다.

오세창의 한국서화사 연구집을 완역한 『국역 근역서화징』, 사진 조명기법 지침서인 『프로라이팅』 시리즈, 영화총서 『시네 파일』 시리즈를 출간하고 있으며 매년 2회 미술사 연구 전문지 『미술사 논단』을 발행하며 한국미술연구소와 함께 미술전문서적을 왕성하게 출간하고 있는 한편 『옥스퍼드 20세기 미술사전』을 펴내 해외 미술의 소개에도 힘을 쏟고 있다.

1978년 미술전문출판사로 예경산업사로 출발한 예경은 우리 미술과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전무하던 시기에 '내안의 아름다움'을 바로 알지 못하고서는 '세계의 보편적 아름다움' 또한 알기 어렵다는 목표로 우리문화와 우리미술에 관심을 두고 출판을 해왔다.

그러한 노력은 본격 화집인 『한국미술 오천년』(전8권), 우리의 국보, 보물, 문화재 2,400여 점을 총망라한 『국보』(전14권), 한국화단 거성들의 미술세계를 집대성한 화집 『한국의 회화』(전8권), 한국의 보편적 미를 확인시켜 준 『한국의 민화』(전2권), 한국미의 진상을 알린 『석굴암』 등을 출간함으로써 우리문화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알리고 있다. 이외에도 많은 출판사들이 미술출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향후 출판에 뛰어들 계획으로 있다.

<다음호에 계속>

<정준모 ·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